

“해고자는 현장으로, 카허 카젼은 감옥으로”

불법파견 4대 요구 쟁취, 한국지엠 규탄 금속 결의대회 열어 ... 금속·민주노총·인천 시민사회 연대 반격 선언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인천 시민사회·진보정당 등과 연대해 불법파견 범죄 집단 한국지엠 자본에 반격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4월 27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불법파견 범죄 축소안 철회, 4대 요구 쟁취, 한국지엠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은 2021년 11월 19일 금속노조에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특별협약’을 요청했다. 3월 24일 3차 교섭에서 ‘1차 하청업체 소속 직접 생산공정 현재 재직자 260명 발탁채용’안을 제시했다. 3월 31일 ‘1차 범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 교섭은 없다면서, 5월 1일 자로 1차 업체 폐업과 해고 예고 통보를 강행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 세지회는 4월 13일 부평공장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불법파견 행위·비정규직 노동탄압 공식 사과와 배상 ▲불법파견 투쟁·구조조정 과정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한국지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동시 미지급 임금 지급 등 4대 요구와 해고자 복직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투쟁에 돌입한다 선



포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4월 27일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한국지엠 뻔뻔함과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 의지 없이 금속노조를 기만하기 위해 교섭을 제안했다”라고 규탄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한국지엠은 교섭에서 해고자 160명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며 무시했다”라면서 “자본이 제시한 260명 발탁채용은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한 1,797명은 물론 승소한 850명에 턱없이 부족한 제시안이었다”라고 분노했다. 한국지엠은 교섭 중 3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에게 해고예고장을 날리는 만행도 저질렀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국민혈세 8,100억 원은 어디로 갔는가. 군산공장을 폐쇄한 지엠 자본이 부평 2공장 폐쇄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업체 줄도산, 연쇄 폐업, 대량 해고의 먹구름

몰려온다. 부품사 노동자, 금속노조, 민주노총, 인천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연대해 반격을 시작할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영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 지회장은 “법원이 불법파견 소송 판결 하나 하는 데 10년 걸리고, 노동부 차별시정명령 다루는 소송을 행정법원

에 내면 꿈쩍도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결과는 솜방망이 그쳤다”라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영수 지회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을 상대로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지회장은 “카허 카젼 사장이 불법파견 피의자재판 중에 중국으로 도망가려 한다”라며 “이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대응 투쟁을 만들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영수 지회장은 “지엠 자본은 사장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만적인 발탁 채용 260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불법파견 범죄에 사과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제가 버티기는 정말 잘한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범죄를 사과할 때까지 동지들과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단위 사업장 투쟁으로 해결 못하는 산업전환 국면”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 현장순회 4주 차 ... 인천지부 조합원 만나 자본 착취 근절 투쟁 호소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이 4월 25일 인천지부를 시작으로 4주 차 현장순회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은 4월 25일 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현대ISC지회 출근 선전전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지회 간담회, GMTCK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간담회, 부평공단지회 현장순회와 간담회 등으로 짝 찬 하루를 보냈다.

노조 인천지부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은 현재 재벌 주도로 벌어지는 산업전환이 개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20만 총파업의 목표에 관해 질문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사와 철강,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산업전환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라면서 “자본은 산업전환 국면에서 자회사 꿈수 등 생산 관계 전반을 건드리며 새로운 착취 구조를 만들고 있다. 금속노조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관련사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부평2공장 물량감소 대응책을, 현대두산중공업지회 간부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법 헌법소원 전망을 질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인 사업장이 별로 없다. 동지들이 열거한 문제는 단위 사업장 투쟁과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며 “금속노조는 현재 정세에서 7월 총파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산업전환에 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으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라며 총파업 조직을 독려했다.

위원장은 “현장을 찾아 다녀보니 어려운 상황을 더욱 절감한다” 라며 “나쁜 상황에 실망해 낙담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은 4월 27일 대전충북지부, 28일 경기, 29일 울산 순으로 4주 차 현장순회를 수행한다.